해녀의 결

해녀의 숨을 오늘의 정원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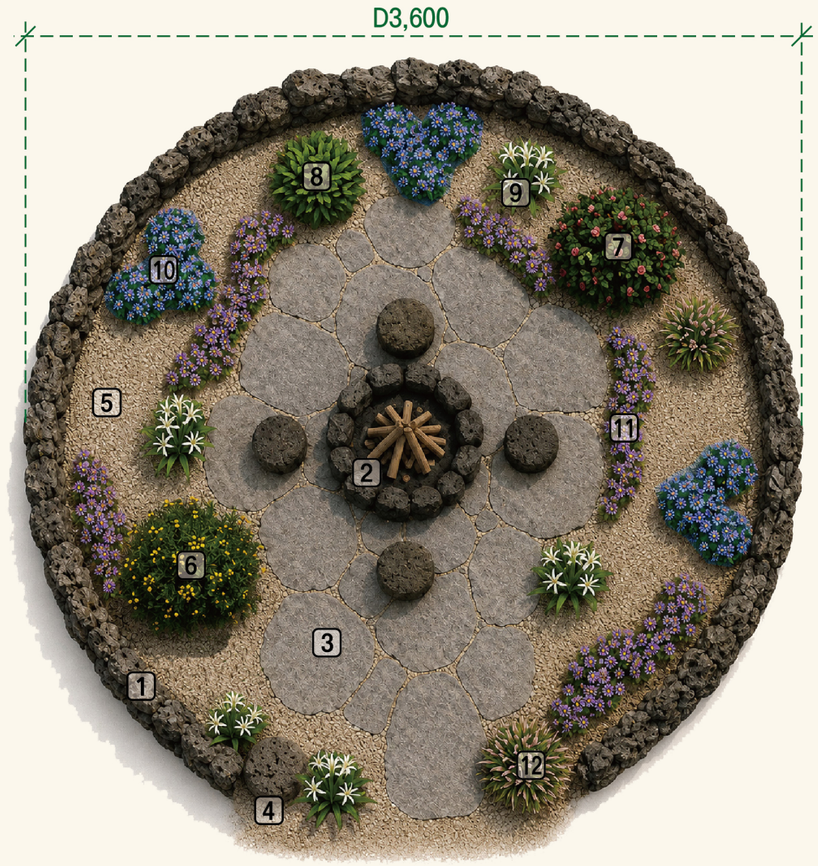


해녀들이 물질을 마친 뒤 몸을 녹이고
삶을 나누던 불턱의 따듯한 기억을 현대 정원으로 재해석한
모두가 함께 머무르는 제주인의 뜰입니다.

OVER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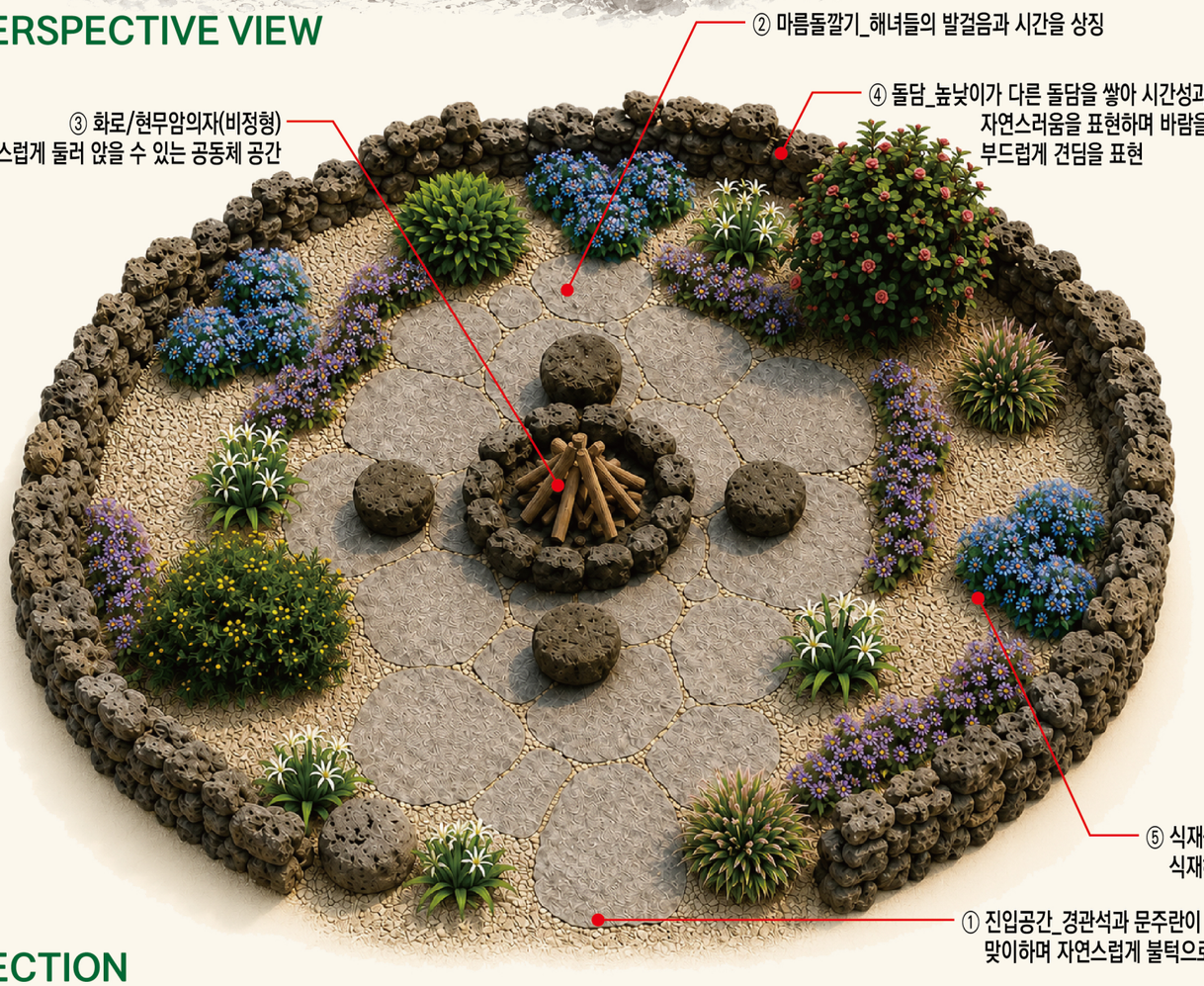
제 목	해녀의 곁
규 모	약 10.17m2(D3,600)
주 제	제주인의 삶과 자연을 담아낸 소규모 정원
주 재 료	돌담(현무암), 마름돌깔기(현무암), 해안자생식물(황근, 순비기나무 등) 왕마사(모래 대체)
주요모티브	불턱

MASTER PLAN



1. 돌담(H500~1,000)
2. 화로/현무암의자(비정형)
3. 마름돌깔기(현무암)
4. 경관석(현무암)
5. 왕마사 포설(멀칭)
6. 황근(H1.0xW0.6)
7. 동백나무(애기)(H1.2xW0.8)
8. 사스레피(우묵)(H0.6xW0.4)
9. 문주란(H0.5)
10. 순비기나무(H0.3)
11. 해국(H0.1)
12. 털수염풀(H0.3)

PERSPECTIVE VIEW



PLANTING PLA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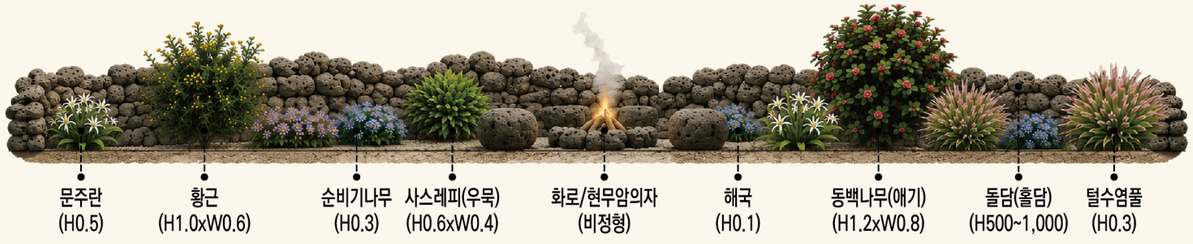
황근 | 동백나무(애기) | 사스레피(우묵) | 문주란 | 순비기나무 | 해국 | 털수염풀

MATERIAL



돌담(홀담) | 화로/현무암의자 (비정형) | 마름돌깔기 (현무암) | 경관석 (현무암) | 왕마사포설 (멀칭)

SECTION



[불턱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, 사람을 품는 공간이었습니다. 본 작품은 제주 해녀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만들어온 공동체의 기억을 오늘의 정원으로 이어가는 '제주인의 뜰'을 제안합니다]